

텍스트의 정보성—문학작품 속 어휘번역

김 세 정
(호남대)

1. 서 론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진 각 나라들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해서 번역하려면 단순히 언어체계만을 분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번역학자들마다 번역의 단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인간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이 점점 강조되면서 단순히 문장 단위내에서의 분석이 아닌 맥락을 고려한 텍스트를 번역의 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역자가 문장이나 단어의 개별 의미에만 편중하면 정작 그 텍스트 전체가 전달하려는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어떤 언어를 번역하려면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단순히 문법적인 언어지식이 위주가 아닌 언어외적 상황까지 고려한 텍스트 전체 맥락적인 이해를 통해 번역은 이루어져야 한다.

보그랑데·드레슬러(Baugrande & Dressler 1981)는 텍스트를 단순히 언어의 표현이 아닌 인간 사고의 표현단위로 보고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본 것으로 텍스트 맥락을 중시하고 또한 인

간은 텍스트 자체에서 이해하지 못한 사항들을 텍스트 외적인 경험 및 지식을 통해 추론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그랑테와 드레슬러는 이와 같은 인지적인 의사소통 작용에 있어 각 언어마다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만드는 텍스트성 실현 기준을 이루는 구성 요소 7가지 결속구조(cohesion), 결속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상황성(situationality), 정보성(informativ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제시하고 있다. 텍스트를 이루는 7가지 기준을 고려해보면 보그랑테·드레슬러의 텍스트 언어학은 다분히 우리 인간의 인지적인 면을 고려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텍스트의 효율성(efficiency), 유효성(effectiveness), 적절성(appropriateness)이라는 텍스트적 의사소통을 규정하기보다는 제어하는 제어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s)에 의해 텍스트의 구성과 용법이 제어된다.

이처럼 텍스트성을 이루는 7가지 구성적 원리와 3가지의 제어적 원리를 모두 추구해야 텍스트적 통화가 가능한 것이다. 즉 언어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언어외적인 상황적인 면을 고려한 전달자와 수용자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가지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이와 같은 텍스트 개념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통합성을 지닌 문장이상의 단위로서 완결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개별요소들이 구조적으로 연속 연결되고 의미상으로도 일관성을 이루어야 텍스트로서 성립된다. 인간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텍스트의 전반적인 기능과 구조를 모두 감안하여 해석해야 하는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입장에서 텍스트를 분석해야 한다. 결국 텍스트란 전체 구조간 유기적 연쇄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의미결합의 단일체로서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단위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기능을 가진 텍스트 단위를 기준으로 번역에 접근할 때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인지적 교류가 가능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2. 텍스트의 정보성과 번역

텍스트와의 상관성을 이루는 7가지 조건 중 정보성(informativity)은 수용자에게 제시된 자료가 새롭거나 예측 불가능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료처리

의 난이도와 흥미의 정도를 결정한다. 어떤 텍스트를 접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정보를 맥락 내외적 요소를 통해 내용을 추측하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만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설작품을 읽기 전에 대부분 그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취한 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접한 경우, 처음부터 자신이 예상한대로 내용이 흘러가고 결말 또한 그렇다면 정보성이 아주 낮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소설가들은 종종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서두에 정보성을 높이거나 결말에 반전을 주기도 한다.

다음 김동인의 작품 「붉은 산」(1932) 서두에서 작가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정보성을 높이고 주인공이 등장하기까지 주변상황을 묘사하면서 점점 정보성을 낮추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그것은 여가 만주를 여행할 때 일이었다. 만주의 풍속도 좀 살필 겸 아직 낯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의 사이에 퍼져 있는 병을 좀 조사할 겸 해서 일년의 기한을 예산하여 가지고 만주를 시시콜콜이 다 돌아온 적이 있었다. (중략) 여는 그 동네에서 한 십여 일 이상을 일없이 매일 호별 방문을 하며 그들과 이야기로 날을 보내며, 오래 간만에 맛보는 평화적 기분을 향락하고 있었다.

‘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정익호’라는 인물을 본 것이 여기서이다.

독자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뒤에 이어지는 상황과 배경을 통해 정보성을 낮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수용자의 호기심을 요하는 소설이나 광고 혹은 유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실을 요구하는 법전 서나 일반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진리를 나타내는 텍스트에는 적절하지 않다.

보그랑데·드레슬러(1981)는 맥락적 개연성(contextual probability)을 언급하면서 ‘기대’(expectations), ‘가설’(hypotheses), ‘기준치’(defaults), ‘선호’(preferences), ‘예측’(predictions)같은 개념들이 텍스트 상에서 언어표현들을 조절하는 중요 요소들이라고 했다. 텍스트마다 개연성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연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체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균일하지 않지만 정보성의 정도를 개연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체계에나 배경에 잘 통합되어서 예측가능성 정도가 가장 높은 1차

정보성(first-order informativity)의 통화상 개념은 ‘기준치’(defaults)와 ‘선호’(preferences)이며 어떤 텍스트에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독자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기준치’나 ‘선호’의 기준이 깨지면 2차 정보성(second-order informativity)을 얻게된다. 중간단계인 2차 정보성을 갖는 것이 통화상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수준이 기대하는 선택사항 밖에서 이루어지는 3차정보성(third-order informativity)은 더 많은 흥미를 유발하지만, 불연속성(discontinuities)과 불일치성(discrepancies)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발화들을 통합해야 한다. 3차 정보성은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2차 정보성으로 격하(downgraded)되기도 하는데 그 해결방법으로 동기탐색(motivation research)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수용자가 앞에 나타난 발화에서 동기를 찾으려면 후향격하(backward downgrading), 뒤에 나타날 발화에서 동기를 고려하면 전향격하(forward downgrading)가 되고, 텍스트를 벗어나 동기를 탐색하면 외향격하(outward downgrading)이다. 이러한 중간조정 과정을 통해서 그 연속성이 복원될 수 있다.

정보성이란 제시되는 자료가 새로운 것이나 또는 비예측적인 것이나 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마다 습득한 지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대에 따라 텍스트 수용자들의 정보성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각각의 수용자들이 갖고 있는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면 당연히 같은 텍스트라도 정보성의 단계가 틀려진다. 그래서 번역할 때 수용자 입장에서 텍스트에 접근하여 정보성을 탐색,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사회, 문화, 역사 등의 경험을 함께 해 온 공동체는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외적 상황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축적된 많은 정보는 공동체마다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천 언어 독자에게는 익숙한 정보가 목표 언어권 독자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용자가 어떤 텍스트를 접했을 때 언어, 내용, 목적이 자신의 지식 범위 외에 존재하면 텍스트 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어 의미를 지닌 각 발화체들의 맥락관계를 찾아내어 인지적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 번역시 이런 인지적 차이를 인식하여 어떤 식으로 옮겨주어야 하는지 선택의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소설 텍스트는 작가 특유의 문체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색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문의 의도

를 살리면서 목표언어 독자의 동일한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정보의 조절이 어렵다. 한국소설 작품에는 전통신앙이라든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은데 이러한 작품을 많이 접한 한국 독자들에게 그 내용은 1차 정보성을 가지기 쉽지만 처음 접하는 외국독자들에게는 높은 3차 정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 속에 나타난 단어나 표현들을 적절히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 나라의 역사적 사건, 풍습, 지방색이 드러나는 비유표현들이 작품 내에 쓰인다는 것은 단순히 외연적이 아닌 맥락 내에서 내포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와 등가를 이루는 표현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작품의 언어외적 배경과 문화의 특색을 잘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3. 어휘 번역과 정보성

어떤 체계나 배경에도 잘 통합되어 1차 정보성을 갖는 기능어(function words)보다 내용어(content words)가 정보를 더 많이 지니고 있다(보그랑테·드레슬러 1981:142). 내용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지적 요소들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기능어보다 감정적이고 심적인 이미지를 더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 가능한 대체형이 많을 때 선택된 내용어는 더 높은 정보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형을 찾는 과정에서 기대, 기준치, 선호, 예측, 가설등의 개념이 텍스트상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어휘를 번역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대체형이 기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텍스트의 맥락적 개연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텍스트에서 그 선택어휘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텍스트를 접한 독자마다 예상 기대가 다르므로 번역시 그 기대를 고려하여 번역해 임해야한다. 자신의 지식을 벗어난 정보를 접했을 때 독자들은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와 언어외적 지식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하는데 이 때 번역가의 적절한 번역방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텍스트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텍스트가 개연성을 갖추는데는 의미적 요소를 갖춘 어휘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그 어휘들의 의미 파악을 기반으로 번역이 행해져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번역텍스트가 구성될 수 있다. 어휘들의 의미는 그 어휘가 사용되는 문화권내 사람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보통 명사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보면 번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휘 번역이 어려운 이유는 어휘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개념이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으며 또 이런 어휘들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대응하는 어휘가 언어마다 틀리며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어휘들이 홀로 떨어져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텍스트 맥락 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독자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앞으로 되돌아가거나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도 읽어 내려가는 동기탐색의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텍스트 이해를 위해 어떤 독자라도 행하는 과정이다. 즉,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보편적인 2차정보성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목표독자가 이 과정을 수행하는 중에 이해의 정도를 조절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역가는 언어, 문화, 장르, 관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텍스트와의 친숙성 영향을 받는다. 원문 텍스트가 쓰여진 동시대 번역가라면 그 텍스트 정보가 1차적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 어휘의 쓰임과 개념이 변한 텍스트를 접한 번역가에게 3차 정보가 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텍스트 속에 사용된 낯선 어휘들에게서 느끼게 된다.

정보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원어민도 원문을 해당 외국어로 번역할 때 생경한 어휘들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자료연구를 통해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낯선 문화적 개념들을 포함하는 한국 문학작품에서 어휘들의 번역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샤머니즘적 문화적 특색이 잘 드러나 있는 몇 작품을 중심으로 각각의 텍스트에서 동일한 어휘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알아보았고 또 「엄마의 말뚝 I」(박완서 1980)은 두 개의 번역서에서 같은 어휘들의 사례를 분석 해서 번역동향을 비교해 보았다.¹⁾

1) 분석 작품은 다음과 같다.

- 「무녀도」(김동리 1936) “Picture of a Sorceress”(1975), translated by Il Ji Sa
 「바위」(김동리 1936) “The Rock”(1981), translated by Kevin O'rourke
 「엄마의 말뚝 I」(박완서 1980) “Mother's Stake I”(1990), translated by Yoo Young Lan; “Momma's Stake part one”(1999), translated by Yee hyun Jae
 「장마」(윤홍길 1973) “The Rainy Spell”(2002), translated by Suh Ji-moon

3.1. 문학작품의 어휘번역

문학작품 속에 쓰인 어휘들은 그 나라나 민족의 역사와 함께 변천 발달해 온 고유의 언어가 많이 쓰이며 또 각 지방마다의 독특한 어휘적 특색이 드러난다. 또한 언어적 표현 그 자체의 고유한 문체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형성해 내기 때문에 번역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 다양한 의미를 가진 어휘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정도는 번역가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문학텍스트의 작가가 선택한 단어들을 기준으로 텍스트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작품의 번역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

문학작품 속에 쓰인 사람이름이나 지명, 명칭 같은 것들은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한 작가의 고유 표현일 경우가 많다. 특정한 사물 및 사람의 고유 기호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그것으로 불리는 개체의 속성(屬性) 모두를 포함하여 함축적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번역가는 해당 언어에 대한 유래, 배경 및 상징하는 의미등의 외연적 지식이 필요하다.

1900년대 초·중반 한국 소설작품에는 토속적인 색채가 강한 고유명사가 많이 포함되어있다.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는데 특히 토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강한 김동리 작품 속 주인공들의 이름에 그 상징이 잘 나타나있다. 「달」(1947)과 「황토기」(1949)에서 ‘달’은 제목임과 동시에 주인공의 이름이며 자연의 달을 상징하는 3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억쇠’와 ‘득보’라는 이름은 건장한 장수의 이미지인데 이 이름을 통해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목표독자는 없다. 또 무력한 인간이 그 존재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무속을 통해 새로운 원형적 삶을 획득하는 대표적 작품「무녀도」(1936)와 「을화」(1978)에서 무당인 ‘모화(毛火)’와 ‘을화(乙火)’의 이름에는 이끌거리는 불의 열정과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내재해 있다. 작가는 이름 속에 불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무녀도」의 ‘모화(毛火)’에게 뜨겁고 열정적인 ‘불’의 형상을 표현하고자 했다(유기룡 1999:6-7). 번역텍스트에서는 ‘모화’를 그대로 ‘Mo-wha’라고 음역했지만 작품 속에 ‘모화’라고 불리는 이유가 설명되어있기 때문에 맥락을 통해 정보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을 텍스트 내 이름 자체에 넣어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인 「을화」를 ‘ULHWA the shaman’ 이라고 ‘the shaman’이라는 어휘의 추가로 한국의 샤머

니즘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어 한국의 전통문화에 전혀 문외한인 목표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정보성을 낮춰 주는 방법이 되었다.

다음은 「무녀도」에서 무당인 모화가 치성을 드리는 신의 이름을 번역한 예이다.

<예문1>

ST: 성주는 우리 성주, 칠성은 우리 칠성
 조왕은 우리 조왕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주님께 비나이다
 하늘에는 별, 바다에는 진주
 금은 같안 이내 장손, 관옥 같안 이내 방성
 삼신해 수를 빌하 칠성해 명을 빌하
 성주해 복을 빌하 용신해 덕을 빌하…….2) (「무녀도」 252-53)

TT: “The Site-god is our god, the Seven-stars are with us,
 The Kitchen-god is on our side too,
 I beg, I beg, I beg mercy of you, the God of the dead.
 Stars in the sky, pearls in the sea,
 Gold-like, silver-like my child, Crown-jade-like my Room-star,
 Praying to the Mountain-god for life,
 Praying to the Spirit-of-birth for length of life,
 Praying to the Seven-stars for blessing,
 Praying to the Spirit-of-virtue for goodness....”
 (“Picture of a Sorceress” 208-09)

위 예에서 ‘성주, 칠성, 조왕, 삼신’을 각각 그 단어에 포함되어있는 신의 성격

-
- 2) 성주: 집 전체를 수호하는 동시에 가장을 보호하는 신
 칠성: 칠성을 신으로 경배하는 신앙.
 칠성은 칠원성군의 준말로 비를 내려 풍년을 이루게 하고, 수명을 연장해주며, 재물을 준다고도 믿어진다.
 조왕: 불의 신이면서 부엌을 관장한다.
 삼신: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를 수호하는 신령.(두산 엔싸이버 세계대백과사전 2001)

을 반영하는 번역을 해서 목표독자들도 그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해서 고유명사임을 나타내고 음역이 아닌 각 신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번역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관성 있는 어휘 번역과 함께 전체적인 배열 또한 원문과 일치하도록 번역해서 원문을 훼손하지도 않고 목표언어권 독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름 하나라도 어떤 식으로 번역하느냐는 번역가의 판단이 텍스트 내용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동리는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매개체의 상징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토속적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바위」(1936)는 모든 것을 잃은 문둥병 걸린 술이 엄마가 소원을 이뤄준다는 복바위를 문지르다가 우연히 아들과 재회하게 되고 그 후 복바위를 맹신하여 매일매일 문지른다. 어떤 영감한 물건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행위는 한국 도처에 깔려있는 신앙이다. 한국인의 샤머니즘의 매개체를 텍스트 내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예문2>

ST: 복을 주는 바위라 하여 복바위라고도 하고, 소원 성취를 시켜준다고 하여 원바위라고도 하고 범이 누운 것 같다고 하여 범바위라고도 부르며, 이 바위의 이름은 이밖에도 여럿이 있었다. (「바위」 227)

TT: The rock had many manes—the Rock of Blessings, because it was said to dispense blessings; the Wishing Rock, because people said it granted wishes; Tiger Rock, because it was shaped like a tiger lying down; and these were only a few of its many names. (“The Rock”, 37)

작품 속에서 ‘바위’가 고유한 샤머니즘 매개체임을 문맥 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번역에서도 역시 그 지역에 있는 고유의 바위를 지칭하는 것임을 영어에서 고유명사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특징을 드러냈고 ‘바위’에 부여된 의미를 번역함으로써 동일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엄마의 말뚝」에 나오는 장롱같이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농바위’를 두 번역가가 각각 ‘Wardrobe Rocks’, ‘Dresser Rock Pass’로 위의 예와 동일한 번역방식을 취했

다.

각 민족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문학작품 속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드러낼 수 있다. 1900년대 초·중반 한국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불안한 현상을 드러내고 그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민간신앙의 힘에 의지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 또 다른 매개체가 ‘무당’이라는 개념이다. 원시적 샤머니즘의 한 형태인 ‘무당’은 오랜 수련을 통해 인간의 뜻을 신에게 전달하고 질병이 나면 병을 고쳐주기도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영어로 번역시 이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주술사, 마술사, 여자마법사’라는 의미를 가진 ‘shaman, sorceress, witch’등에서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에서 동일한 인물인 ‘무당’이 문맥에 따라 다르게 영역됨을 알 수 있다.

<예문3>

a. ST: 이 마을 한 구석에 모화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다. (「무녀도」 240)

TT: In one corner of this village lived a sorceress called Mo-wha.
 (“Picture of a Sorceress” 192)

b. ST: “무당과 판수를 믿는 것은 거룩거룩하시고 절대적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죄가 됩니다…….” (「무녀도」 259)

TT: “To believe in a witch of a blind fortune-teller is a sin against the one only true and most holy God, our Heavenly Father.” (“Picture of a Sorceress” 215-16)

이 작품의 기본구도는 토속신앙인인 엄마와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의 갈등이다. a는 소설 도입부분에서 등장인물의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무당’의 개념을 쓴 것이고 b에 쓰인 ‘무당’은 문맥상 기독교와 대치하는 부분으로 선교사가 무속신앙을 죄악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witch’라는 부정적 어휘로 바꾸어서 같은 어휘를 다르게 번역해서 의미의 차이를 느끼게 해 주었다. 이 작품에서는 ‘모화’라는 여자 무당을 지시하는 ‘sorceress, witch’에 대응하여 사내 무당 ‘화랑이’는 ‘acolytes’라고 번역했다. 또 당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

정을 보여주는 ‘예수귀신’이라는 표현을 ‘Jesus Devils’로 번역하고, 그 상대 사람이 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holy god’은 이 소설의 대립구조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문맥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의미 차이를 반영한 어휘의 연계성 있는 번역이 목표텍스트의 정보성을 격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엄마의 말뚝 I」(1980)에서 쓰인 ‘무당’이라는 어휘의 두 번역을 비교해보면 각각 ‘shaman’, ‘sorceress’로 번역하였으며 ‘굿’은 첫번째 역에서는 음역을 하고 설명을 덧붙였으며, 두번째 역에서는 ‘exorcism’이라고 영어권의 의미에 맞는 표현을 썼다. 이와 달리 「무녀도」에서는 ‘굿’을 ‘rite’라고 번역하고, 대신에 ‘푸닥거리’를 ‘exorcism’이라고 번역하였는데 ‘굿’과 그 하위어인 ‘푸닥거리’가 같은 텍스트에 쓰여 구별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단어라도 작품에 따라 번역이 다르게 됨을 보았는데 해당 단어의 개별적 의미만을 파악해서 동일하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의 단어가 연결되어 문장을 이루고 질이 되고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므로 단어의 이해를 기본으로 전체적인 문맥을 통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예들처럼 민족적 상징을 대표하는 동시에 문화적으로 고유하게 쓰인 어휘들은 그 특징을 드러내면서도 문학작품이라는 특정 텍스트 문맥에 쓰이기 때문에 작품 내용을 이끌어가는 어휘가 목표독자의 텍스트 정보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는 전통 의복 및 음식, 가옥구조의 명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의복은 한복이다. [표1]에서 ‘치마’와 ‘저고리’를 첫번째 역에서는 목표언어권에 맞는 표현을, 두번째 역에서는 음역을 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무녀도」에서는 각각 ‘skirt’, ‘jacket’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목표독자를 고려한 번역으로 볼 수 있지만 한복의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 또, 한복과 같이 짝을 이루는 ‘댕기’를 두 번역가 모두 ‘ribbon’이라고 영어의 대응되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버선’을 「바위」에서는 버선의 성질을 설명하는 ‘heavy woolen socks’라고 번역 했는데 ‘korean socks’라고 일반화하는 표현도 적절한 것 같다. ‘저고리’나 ‘버선’같은 것들은 그 모양이 특이하여 영어에서 적절한 등가어 찾기가 힘들다. 민족을 대표하는 한복같은 의복의 명칭은 음역을 해 주는 편이 더 적절하겠지만 번역가의 선택에 따라 목표 언어의 대응되는

어휘로 번역할 때는 '치마'에 '저고리'가 따라오듯이 짝을 맞춰서 동일한 방법으로 번역해주어야 한다.

한국의 전통 가옥구조로는 기와집과 초가집이 있으며 그 내부구조를 부르는 명칭도 참 다양하다. '기와집'이나 '기와지붕'은 대부분 'tiled roofs'로 쓰이고 있으며, '안방, 건너방, 마루, 아랫방'같은 한국만의 가옥구조 명칭은 어휘 선택은 다르지만, 그 기능이 드러나는 번역을 하였다. 「엄마의 말뚝」과 비교하여 「장마」(윤홍길 1973)에서는 건너방을 'adjacent room'이라고 표현했으며 '사랑방'이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공간을 각각 'grandfather's room', 'male quarters'라고 번역했는데 전자는 작품 내에서 사랑방을 사용하는 사람이 할아버지라서 문맥을 고려하여 표현해 주었고, 후자는 좀 더 일반화하여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는 장소임을 드러냈다. 한편 「무녀도」에서는 'sarang(guest-room and study)'이라고 음역하고 괄호 안에 그 기능을 설명했다. '아랫목'이라는 단어도 '온돌'이라는 한국만의 난방시설에서만 존재하며 손님이 오셨을 때 방의 아랫목에 모신다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단어이다. 첫번째 역에서는 우회적으로 문맥 내에서 생략했으며 두번째 역에서는 작품에서 엄마가 동네사람들은 따뜻한 곳으로 불러들여 음식을 대접한다는 맥락으로 그 의미를 풀어서 번역했다. 한편, 윤홍길의 「장마」에서는 일반적인 '아랫목'의 뜻인 'the warmer of the floor'라고 번역했다. 이 외에도 「문간방, 마루, 부뚜막」등 한국만의 가옥구조를 지칭하는 어휘들의 번역이 각각 단어선택은 다르지만 해당 단어들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잃지 않고 번역했다.

음식이름 역시 목표독자들에게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 '김치', '불고기'같은 일부 한국 전통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번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은 목표언어권 독자들이 한국음식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치'는 한국의 고유성을 알리는 수단으로라도 음역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표1]에서 음식 이름의 번역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그 음식에 쓰인 성분을 풀어서 번역했는데 한음절인 '엿'은 길게 풀어서 번역하기 보다는 'taffy'인 상응어나 「바위」에서처럼 'yut'이라고 음역하는 것이, 전통 술인 '막걸리'는 'wine'이라고 하면 목표독자들이 술이라는 것만 알지 고유하게 만든 한국 전통 술이라는 정보는 얻을 수 없으므로 'Makkoli[cheap rice wine]'라는 음역이 더 적합하다.

[표1] 어휘번역 사례

분석 텍스트	Source Text (박완서 1980)	Target Text1 (유영난 역 1990)	Target Text2 (이현재 역 1999)
	분류	엄마의 말뚝 I	Mother's Stake1
무 속	굿	a Kut, the shamanistic ritual	a exorcism
	무당	a shaman	a sorceress
	작두춤	dance	knife dance
	봉제사	ancestral memorial services	sacred memorial services to our ancestors
의 복	치마	skirt	chima[traditional Korean skirt]
	저고리	blouse	Chogori
	댕기	ribbon	ribbon
가 옥 구 조	초가집	thatched roofs	thatched roofs
	기와집	tiled -roofed house	tiled -roof
	안방	the main room	master bedroom
	건너방	another room	second room
	아랫방	the third room	third room
	사랑방	grandfather's room	male quarters
	문간방	a room nearest the gate	a room near the entrance
	단간방	one room	tiny toom
	마루	the square hallway	sitting room
	뒷마루	hallway	a narrow side porch
	부뚜막	fireplace	a kitchen range
음 식	김치	salted cabbage	Kimchi[pickled cabbage]
	엿	glutinous rice candies	taffy
	깨강정	crispy sesame rice cookies	a special starch jelly coated with sesame seeds
	국화빵	the red bean cakes	the red bean cake
	막걸리	some wine	Makkoli[cheap rice wine]
	조찰떡	a rice cake	a glutinous millet cake

[표2]에서는 이어 작품 속에 쓰여진 생경한 개념들의 번역사례인데 대부분 앞에서 제시한 예들과 비슷한 번역방법을 따르고 있다. 고유한 지명이나 명칭은 첫글자를 대문자를 써서 변별하도록 했고 그 외에 보통 명사들은 역시 그 속성이 드러나도록 번역했다. ‘괴불마당’은 서울에 올라와 셋방살이로 고생하다가 얻은 새 집의 마당으로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로 ‘괴불’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각각의 번역에서는 그 애칭을 무시한 삼각형 모양의 마당인 ‘tirangular yard’와 ‘괴불’의 의미를 살린 ‘ornamental courtyard’로 번역했는데 후자가 문맥상 더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 ‘신여성’이란 개념은 1900년대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어휘로 당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던 여성이 학교에 정식으로 들어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여성을 가리킨다.

[표2] 어휘 번역 사례

Source Text (박완서 1980)	Target Text1 (유영난역 1990)	Target Text2 (이현재역 1999)
엄마의 말뚝 I	Mother's Stake I	Momma's Stake part one
농바위	Wardrobe Rocks	Dresser Rock Pass
괴불마당	triangular yard	ornamental courtyard
개성역	Song-do station	Gaesung train station
경성역	Seoul station	Kyungsung train station
국사당	a shamanist temple	Most Reverend Priest Shrine
신여성	a New Woman	a modern woman
지게꾼	porters	coolies with A-frames
신주단지	ancestral tablets	a jar containing an ancestor's tablets
충충시하	her responsibility to serve the hierarchy of the family	her duty to care for both parents and grandparents of her husband
보자기	a magic bundle	cloth wrapper
보따리	bundle	bundle
명석	mats	straw mat
병풍	생략	a folding screen
아궁이	furnace	the mouth of furnace
대야	a big bowl	a washbasin
구멍가게	corner store	small shop
전중이	prisoner	inmate

이러한 개념을 이 작품 속에서 파악할 수 있긴 하지만 ‘a New Woman’이나 ‘a modern woman’의 번역을 접하고 목표독자들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보자기’를 ‘a magic bundle’이라고 표현한 것은 보자기라는 개념과 함께 작품 주인공인 소녀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번역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학작품에 쓰인 어휘의 번역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모국어인들에게도 이제는 낯선 개념인데다가 시기도 현대가 아니고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문화적인 단어들만 쓰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목표어를 발견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풀거나 일반화해서 번역한 경우가 많았으며, 고유명사인 경우 그대로 음역을 하거나 음역한 후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목표언어권에는 없는 생경한 개념이지만 보통 명사들은 비슷한 어휘로 대체하기도 했다. 해당 텍스트를 접하는 독자가 모국어자인 경우 어떤 어휘를 보고 그 지시 대상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 목표언어독자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문학작품에 쓰인 문화적 상징어들을 접할 때 텍스트에 대한 정보성이 높아져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외향격하를 거쳐야한다. 이러한 목표 독자들의 텍스트 분석에 대한 노력을 번역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다.

3.2 어휘 번역의 정보 보상 전략

어휘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다르며 그 기준 범주 또한 문법, 의미, 시간상, 계층등에 따라 분류될 정도로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분야별로 연계성 있게 쓰여진 어휘들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번역할 때 번역가가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선택해서 어떻게 목표 언어로 표현해 내느냐에 따라 텍스트의 정보성 단계가 틀려진다. 정보성은 고정되어 있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번역가의 의도적인 정보제어가 가능하다. 문학작품 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어휘들보다는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문체를 드러낼 수 있는 문화적 어휘들이 많이 사용된다. 이런 상징적인 요인을 포함하는 어휘들이 텍스트에 쓰였을 때 상황이나 시간과 관련주제와의 연관성 있는 언어외적 기준이 필요하다.

스톨즈(Stolze)는 해석학적 입장에서 번역범주를 설정하여 텍스트 번역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번역범주는 번역의 준비과정을 위한 분석을 텍스트 해석이라 하고 원문의 통사구조가 아닌 번역자 자신이 텍스트를 이해한 것을 묘사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주제범주, 의미범주, 어휘범주, 화용범주, 문체범주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의미 범주에서 텍스트 내용을 연관성을 의미있게 해주는 요소는 단어들의 의미자질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텍스트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낱말들을 분석함으로써 텍스트의 이해와 함께 번역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해준다. 전문분야의 의사소통관계에서 어휘범주를 언급하였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어휘는 다른 분야의 전문텍스트와 구분해주는 특징이며 번역자는 다른 분야의 서로 다른 방식의 개념형식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화용범주는 언어사용자 집단과 그들이 사용하는 텍스트는 사회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어의 뜻은 단어 내적인 분석뿐 아니라 언어외적인 분석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에서 문화간의 차이는 알려지지 않은 문화 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불일치, 문화특유의 텍스트 구조로 인한 형식적 불일치, 특정단어에 있어서 그 문화 특유의 내포된 의미로 인한 의미상의 불일치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상의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다(이난희 1995). 스톨즈가 제시한 이와 같은 번역범주는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번역가가 적용해야 범주로 모든 요소들은 고려한 전체적인 의미파악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해석학적 입장에서 바라본 번역은 텍스트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재언어화’되어 텍스트 전체의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자질을 파악하여 번역하는 방법은 내용을 정확히 옮기는 번역방법이지만 원문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언어 독자들의 이해만을 중시한 입장이다. 형식상의 일치도 중요시하는 문학작품 번역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방법일 수 있지만 문학 텍스트에서 쓰인 특정 어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재언어화’는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어휘는 한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대 일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다. 원천언어에 쓰인 한 어휘에 대해 다수의 상응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다. 어휘 차원에서 콜러(1990)는 5가지 대응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로 상이한 언어간에 일 대 일 대응은 거의 발생할 수 없으며, 일 대 다수 대응은 텍스트 차원에서 가능한 상응어가 존재하

는지를 텍스트 연관 관계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수 대 일 대응에서는 외연상 등가를 산출하기가 쉬우며, 일 대 부분 대응의 경우는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에게 적용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텍스트 연관관계측면에서 번역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주석, 각주달기등의 설명적인 조작 방법을 쓴다. 마지막으로 일 대 영 대응 유형은 대응어가 없는 경우이므로 번역가는 이를 적절히 추론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번역조작의 방법을 이용한다. 원천언어의 표현을 목표언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용, 원천언어의 표현이 글자그대로 목표언어로 표현되는 차용 번역,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경우와 원천언어 표현을 목표언어에서 다시쓰거나 정의화 하기 그리고 원천 언어의 표현을 통해 나타난 사건을 목표언어의 의사소통 상의 연관관계 속에서 비교되는 사건으로 대체시키는 적응(adaptation)의 번역방법이 있다. 이 중 원천언어의 표현을 목표언어에서 그대로 쓰는 인용이 문학 텍스트들의 이질화를 위해 종종 사용된다. 번역이란 행위는 낯선 개념이나 문화와 같은 낯선 현실을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하는 작업이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달하기는 어렵다. 번역가는 특정분야의 언어적 규칙들과 함께 보조자료를 연구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1900년대 초 중반의 중단편 소설 몇 편에 쓰인 어휘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대부분 의미자질을 분석한 내용 전달 중심의 번역으로 목표 언어권 독자의 이해를 돕는 번역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국 특유의 문화적 특색이 드러난 어휘는 그에 대응하는 목표언어 표현이 거의 없는 일 대 영 대응이 대부분으로 번역조작이 필요하다.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대체한 경우도 있었지만 설명적으로 다시 써서 그 의미를 전달하려는 번역이 많았다는 점에서 대부분 목표 독자의 작품 이해를 위해 정보성을 낮춘 번역이 주로 행해졌다.

4. 결론

텍스트의 정보성은 의미 내용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일정한 범주안에 정해져있는 어휘를 통해 조절된다. 어휘가 개별적으로 쓰였을 때의 의미는 텍스트

의 번역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 내에서 서로 상관된 어휘들과 함께 쓰였을 때 확실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낮선 어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통해 이루어진다. 번역가가 특정 분야에 쓰인 어휘들의 의미 자질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한 후 어떤 방법으로 번역하느냐에 의해 텍스트의 정보성 단계가 결정된다.

정보성의 관점에서 문학작품은 1차정보성 보다는 3차정보성을 가진 텍스트가 많을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주어진 맥락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번역해 주느냐가 문제이다. 번역가와 수용자는 자신이 지닌 지식에 새로운 정보를 결합해야 하는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표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성의 단계는 격상보다는 격하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번역시 텍스트에 쓰인 독창적인 요소들을 모두 격하시켜 독자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춰주는 것만이 훌륭한 번역은 아닐 것이다. 독자는 자신의 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정보성의 텍스트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기준보다 높은 정보처리과정이 필요한 텍스트에 더 흥미를 갖고 접근하기도 한다. 어떤 텍스트라도 자신의 기준과 선호성에 맞는 1차 정보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외적 지식의 처리과정이 많이 필요한 3차 정보성만으로 이루어 지진 않는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어느 정도가 적절한 번역인지는 직접 번역을 하는 번역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번역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의미전달이 행해지므로 같은 작품이라도 번역가에 따라 정보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번역가는 충분히 원문과 목표독자를 고려해서 정보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충실해야 하며, 목표독자는 정보를 낮추며 자신이 가진 기존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넣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문학이라는 장르를 번역할 때는 원문의 독창성과 함께 목표 독자의 이해를 고려해야 되지만 어떤 작품이 번역된다는 것은 원문 독자들보다 해당 목표독자에 대한 고려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한 텍스트를 대하더라도 독자마다 정보성의 단계를 다르게 느끼는데 그 개개인들에게서 모두 동일한 효과를 이끌어내기란 어려우므로 번역가는 해당 공동체의 보편적 특성을 파악해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번역가는 문학 텍스트에 쓰인 어휘들마다의 의미자질을 보편적 목록에서 선택한 후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번역방법을 이용해야한다.

참고문헌

- 김동리. 1936. 「무녀도」, 『우리시대 실전논술』 8. 서울: 학원출판공사, 244-64.
- 김동리. 1936. 「바위」, 『새 교과서에 따른 현대소설 86선』 3. 서울: 문원각, 40-47.
- 김동인. 1932. 「붉은 산」, 『우리시대 실전논술』 1. 서울: 학원출판공사, 256-63.
- 김태옥 · 이현호 옮김. 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서울: 한신문화사 (Robert de Beaugrande and Wolfgang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박용삼 옮김. 1990.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Werner Koller. 1987.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Heidelberg: Quelle & Meyer).
- 박완서. 1980. 「엄마의 말뚝1」,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173-227.
- 유기룡. 1999. 「김동리 문학작품에 나타난 원형적 상징의 연구」. 『경북어문학회』 33호, 211-28.
- 윤홍길. 1973. 「장마」, 『한국소설문학대계 60』. 서울: 동아출판사, 35-101.
- 이난희. 1995. 「번역에 있어서 텍스트 유형 구분의 문제」, 『텍스트 언어학3』. 서울: 박이정, 435-63.
- Beaugrande, R. and W. Dressler. 1981.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Il Ji Sa. 1975. 'Picture of a Sorceress', *Korean Short Stories*. 190-227. Seoul: Il Ji Sa. (김동리, 1936. 「무녀도」).
- Kevin O'rourke. 1981. 'The Rock', *Ten Korean Short Stories*. 31-43.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김동리, 1936. 「바위」).
- Yoo Young Ran. 1990. 'Mother's Stake1', *What is Translation*. 173-227. Seoul: Tae Hak Sa. (박완서, 1980. 「엄마의 말뚝1」).
- Yee Hyun Jae. 1999. 'Momma's Stake part one', *A Sketch of The Fading Sun* 94-137. New York: White Pine Press. (박완서, 1980. 「엄마의 말뚝1」).
- Suh Ji-moon. 2002. 'The Rainy Spell'. Seoul: Jimoondang. (윤홍길, 1973. 「장

마.)

KCS I

[Abstract]

Informativity of Text and Translation
—With a Focus on Words in Literary Texts

Kim Se Jung
 (Honam University)

Translation is not only a process of linguistic properties but also involves the transfer of culture. The inclusion of cultural nuances has assumed a critical role in literary translation through considering the source text author and the target text reader. In order to convey the source information through literary translation, a translator makes adjustments on the textual level.

Informativity is one of seven standards of textuality developed by Beaugrande and Dressler(1981). They define a text as not being communicative if any of these standards has not been satisfied. Informativity is the extent to which a presentation is new or unexpected for the receivers and it is usually applied to content. Receptors might resolve various degrees of informativity during communication by applying human expectations. Since a language community differs from cultural background, the level of informativity could be different between source reader and target reader, for example, if there is a word familiar to the source receiver while it is assumed to be unknown in the target. Therefore, a translator makes adjustments to maintain the ideal level of informativity.

Most literary texts contain many unknown cultural notions. A Korean literary text implies its own culture-specific factors in native words; traditional food, clothes, housing and so on. If the words were translated literally from a Korean novel into English, most of target readers may not make any sense of them. After a translator understands the connotative sense of the word, he/she

should grasp the meaning in context. Because literary translation should be satisfied with the source text author as well as the target text reader, a translator should choose the right translation strategies considering cultural factors.

There are a lot of ways to translate native words. According to a translator's choice, the information of the words can be provided effectively. When the words in Korean literary text are translated into English, a translator should use various strategies to reduce differences in meaning. Some translators change the words to similar words in the target language but most of words is paraphrased for understanding of target readers. It is difficult to mediate the levels of informativity because there are many potential words in any given literary text. In addition, literary translation needs to consider the originality of the source author as well as the target reader. When a translator translates native words in a literary text, he/ she should analyze the words at the level of textuality and also understand the target culture.



▶주제어: 텍스트, 정보성, 어휘번역, 언어체계, 개별요소, 번역